



스포츠 포커스

광주 전자공고 배구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원 선수, 공태현 트레이너, 이광인, 김선근, 진성태, 공재혁, 한동균 선수, 김필모 감독, 이준영, 이도원, 공재혁, 김대원, 노재욱, 윤학주 선수, 김병석 코치.

동계훈련때 대학팀과 실전 감각 익혔다
“을 전국대회 2관왕 토스”

오는 5월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 개막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고교팀이 있다. 바로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성영) 배구팀이다. 이들은 올해 전국대회 2관왕을 목표로 지난 겨울부터 구슬땀을 흘려왔다. 선수 12명 중 국가대표급 스타는 없지만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막강 과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교감독들도 전자공고팀을 '톱 3'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전대사대부고팀을 그대로 가져와 창단한 전자공고배구팀은 올해로 10년째인 짧은 경력의 팀. 하지만 그간 전력을 보면 어느 명문팀 못지않게 화려하다.

2004년까지 준우승만 두차례(2002년 송원배, 2004년 CBS배) 기록하던 전자공고는 2005년 전국종별대회서 첫 우승의 짜릿함을 맛본 후 여세를 몰아 2006년 연맹회장배 우승에 이어 2007년엔 춘계종교대회, CBS배와 전국체전을 휩쓸며 시즌 3관왕에 오르는 신흥명문으로 자리잡았다. 김필모 전자공고 감독의 지휘아래 선수·코치가 땀 땀 뚝뚝이 뉘러낸 놀라운 기록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전자공고도 지난해에는 전국대회 정상 등극 없이 '휴식기'를 갖는다.

그간 주전으로 활약했던 3학년들이 졸업하면서 전력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굳이 입상대회를 찾았다면 해양스포츠제전 비치발리볼(2인제) 1위 기록이다.

지난 1년간 움츠려있던 전자공고팀이 올해 전국 정상에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다. 지난 겨울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력을 재정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차 사기충천해 있다. 4개월간의 동계훈련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련과 기본기 훈련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낮에 순발력과 점프력 훈련, 밤엔 웨이트트레이닝 등 체력훈련을 실시했고 12월엔

기본기 위주로 개인별 기량향상에 주력했다. 을 1·2월엔 실전 경험을 쌓기위해 주 3일 연습경기를 갖고 나머지 3일은 연습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특히 연습경기에서는 고교팀이 아닌 한양대·인하대·명지대·홍익대·조선대 등 대학 강호들을 상대로 한 수석 배우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행운을 갖기도 했다. 이렇듯 수준 높은 연습경기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동시에 어떠한 팀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키워

세운다. 김 감독의 이같은 자신감 뒤에 든든한 12명의 전사들이 버티고 있다.

이들 중 주장을 맡고있는 이광인(3년·193cm·레프트) 선수는 이동공격이 좋아 시간차 공격력이 뛰어나다. 또한 백어택과 오른쪽 공격이 일품인 공재혁(3년·195cm·라이트)의 맹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여러 대학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공 선수는 이심 끝에 인하대로 진학을 결정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재치있는 플레이를 펼치는 이준영(2년·185cm·레프트), 장신을 이용한 블로킹이 좋은 진성태(2년·197cm·센터), 볼 배급이 뛰어난 노재욱(2년·188cm·세터), 2단 토스가 뛰어난 김선근(2년·188cm·센터), 리시브가 안정된 리베로 윤학주(2년·175cm) 등도 팀 전력에 주축을 이루고 있다. 팀 막내 김대원(1년·189cm·레프트)도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또다른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자공고 출신 선배들이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김요한(LIG·양성만(한국전력) 선수가 이들의 표상이다. 또한 박홍범(한양대)·서재덕(성균관대)·김태진(인하대)·고준용() 등도 청소년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있는 선배들이 있기에 전자공고 12명의 선수들은 희망을 갖고 더욱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김 감독은 “주전과 후보간 기량차가 크고 2학년들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하지만 탄탄한 조직력과 자신감으로 반드시 전국 정상의 자리를 되찾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인다.

새롭게 배구명문으로 부상하고자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전자공고팀의 올시즌 선전을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서진-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2007년 3관왕 오르며 신흥명문 자리매김

조직력 탄탄... 내달 종별선수권 우승 기대

고강도 겨울훈련을 마친 전자공고는 개학 후 3월엔 수비와 공격력 향상에 주력하고 4월엔 조직력을 높이고자 세트플레이 위주 연습을 가질 계획이다.

계획대로 고강도 훈련이 끝나면 이젠 전국대회를 목표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다. 그간 쌓은 기량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는 바로 오는 5월 열리는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이다. 이 대회 우승팀에게는 한·중·일 주니어종합대회의 출전권도 주어지기 때문에 전자공고팀의 결의는 더욱 날다르다.

김필모 감독은 “이번 대회만큼은 꼭 우승해서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수비가 공격에 비해 약하지만 조직력으로 승부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

<공재혁>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배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시설 분 및 재테크상당 대환영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총수, 감정가, 최저가. Includes sections for '주목 (내집마련/전원주택)', '상가주택/근린시설', and '농지 (주말농장/전원주택 부지/표지/무자)'.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their details.

개업·성업 안내.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Includes sections for '승일공인중개사', '풍년식육점', '조은의로기', '미리산웃담', '수복민물매운탕'. Each section lists a busines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